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토론회 자료집

학교폭력 ·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 일 시 : 2005. 12. 3(토) 오후 2시30분~5시

◀ 장 소 : (재) 전북 여성 교육 문화 센터

◆ 주 최 :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 후 원 : (사)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토론회 자료집

학교폭력 ·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 일 시 : 2005. 12. 3(토) 오후 2시30분~5시

◀ 장 소 : (재) 전북 여성 교육 문화 센터

◆ 주 최 :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 후 원 : (사)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학교폭력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 회 사 최기호(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 / 5

축 사 한기창(한국희망본부 본부장) / 7

축 사 정기원(한국독서지도사협회 이사장) / 8

★ 좌 장 : 이남섭(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장)

주제발표문 1.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형성지원 / 11

• 김덕환(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제발표문 2.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 / 25

• 이재천(전북교육연대 집행위원, 전 전주시의회 의원)

토 론 문 1. 인격 형성기의 청소년 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 35

• 김종영(전북생활체조연합회장, 자전거타기운동본부장)

토 론 문 2.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43

• 백숙현(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사무처장)

토 론 문 3. 학생들이 믿고 본받을 만한 학교가 되어야 / 49

• 유윤중(전주 상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토 론 문 4.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 / 55

• 송운용(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참고자료 1.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한 학생문화 혁신방안,
안승문(서울시교육위원) / 63

참고자료 2.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아시나요?, 서울시 / 91

참고자료 3. 학교폭력대책 관련보고, 교육부 / 99

참고자료 4. 마음놓고 학교가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경찰청 / 109

참고자료 5. 최근 일진회 해체자료, 경찰청 / 123

참고자료 6.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 연혁 / 131

토론회 일정

제1부 식 순

사회 : 김복견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북도지부 사무국장

- 등록안내 2:00~2:30 회원 및 안내 봉사자
- 개 회 2:30~2:40 최기호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북도지부장
- 축 사 2:40~2:50 한기창 한국희망본부 본부장
정기원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이사장
- 내빈소개 2:50~3:00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북도지부장
- 광고안내

제2부 토론회

좌 장 : 이남섭 한일장신대학교NGO정책대학원장

- 주제발표 ① 3:00 ~ 3:20 김덕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주제발표 ② 3:20 ~ 3:40 이재천 전북교육연대 집행위원, 전 전주시의회 의원
- 종합토론 ① 3:40 ~ 3:50 김중영 전북생활체조연합회 회장
② 3:50 ~ 4:00 백숙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처장
③ 4:00 ~ 4:10 유윤중 전주상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④ 4:10 ~ 4:20 송운용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 질의응답 4:20 ~ 4:40

제3부 다과회

4:40 ~ 5:00

개 회 사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
지부장 최 기 호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하신 중에서도 함께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한국희망본부 한기창 본부장님과 독서교육과 문화진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정기원 이사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4년 16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상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간혹 발생하는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은 학교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양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학생들의 문화 양태들과 맞물려 촉발시켰던 일진회에 대한 사례 보고는 그 규모와 특정한 경우를 과장하여 나타내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극소수라 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작 찾아야 할 것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폭력 가담 학생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하면서 무엇이, 어떤 사회구조가 학생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 학교경찰제도나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영상물 심의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거론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들은 매우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불면 봐주겠다’는 식의 엄포, 교사의 학생 고발 유도, 가해자 색출·구속·처벌 강화 등의 대책 역시 또다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없앤다고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이미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폭력문화를 비롯하여 교육당국과 학교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신고정신에 기대거나, 아이들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폭력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두분의 선생님과 토론에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 특히,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이남섭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론회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복견 사무국장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와 살맛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한국희망본부
본부장 **한기창**

사람들은 꽃을 보면 향기를 함께 맛보게 됩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를 뿜어내어 사람을 유혹합니다.
꽃은 열매를 머금기 위해 꽃잎을 크게 벌려 햇살을
들여 마십니다.

이윽고 꽃이 지는 가을이 오면 그 자리는 열매의 자리가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꽃 봉우리가 가지의 순을 드러낼 때의 신비함처럼 놀람과 기쁨으로 아기는 엄마가 아파한 만큼보다 열배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오게 됩니다.

아기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어른들은 웃음꽃의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상상을 아기에 이름에 꿈처럼 새겨 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 노출되어 그들의 공간에서 가장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든 아이들이 너무나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기심이 가득해질 만큼 과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 또한 주눅이 잔뜩 찌들은 과실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라북도지부가 우리의 꿈나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속내에 담아 두었던 숨은 열정을 가슴이 후련하게 한바탕 쏟아내어 차가운 겨울을 덥여주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대책으로 마련되어 학원폭력 근절의 시금석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굳세고 단단하며 그리고 약자를 돌아보며 책임을 다하는 이 땅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사

독서운동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학교 폭력에 대해서……. 과연 학교폭력은 왜 생기는 걸까? 나는 학교폭력이 생기는 이유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학원, 다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성적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뺏는 경우가 많다.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이사장 정기원

하지만 나는 학교폭력에 해결방안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정서불안에 부담이 안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집에서 쉴거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자연히 치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결방안을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오히려 감싸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이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학교폭력을 나쁜 학생들의 일탈행동으로 보기보다는 ‘기성세대들의 삶, 사회환경,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학력중심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것은 중학교 졸업후 성적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십대 초반에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더 일탈행동을 하게 되고, 둘째로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서로 모여 집단을 이루고, 비행집단을 이룬 청소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며, 학교 주변에까지 침투한 온갖 유해업소에 드나들게 됩니다. 유해업소에 출입하려면 유흥비가 필요하게 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며, 친구들의 금품을 갈취하게 되어, 이것이 청소년 불건전한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95년부터 범죄현상이 급격히 일어나 점점 낮은 연령으로 내려와 중, 초등학생들까지 인간적이지 못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부모를 죽이는 살인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아동의 뇌를 연구했더니 그 원인은 게임이나 컴퓨터를 통한 스트레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학교현장에서도 왕따 문제, 폭력사태, 수업거부, 교사의 말에 거부 등 문제들이 파생되어 인간적 교육이 절대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학교교육이 입시에 목적을 두고 있어 학교에선 인간교육이 부족해 어떻게 하면 인간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독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학교 초, 중, 고의 50%정도(700만명)가 아침독서운동을 참여하는 데 독서운동의 결과는 학생들의 집중력 확대, 타인마음 읽기, 독서흥미유발, 국어실력향상, 읽기 및 이해력증가, 아이들의 지각이 없어지고, 이지메(왕따) 감소, 학교와 가정의 독서활동으로 가족 간의 대화 증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아침독서운동협의회 사가와 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좋은 독서습관은 인간성을 회복시키며, 관대한 마음을 갖아 타인을 이해할 수 있기에 독서운동은 학교폭력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독서진흥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독서의 신선한 바람이 청소년들에게 불어와 학교폭력이 감소되고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참석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독서지도사협회 전북도지부 최기호 지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문 1

주제발표 1.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 형성 지원

2005. 12. 3

김 덕 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학교폭력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형성지원

김 덕 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청소년과 자아형성

“인간, 그는 옥좌에 있으나 초가의 그늘에 있으나 같다. 본성으로 본 인간, 그는 무엇일까? 왜 현자는 이를 말해 주지 않는가? 농부일지라도 소를몰면 소에 대해서 알지 않는가! 목자도 양의 성질을 연구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 가정, 이것이 인류의 모든 순수한 자연교육의 터전이다.”

“... 가정이며! 그대야말로 도덕과 국가의 학교이다.”

윗 글은 페스탈로치의 저서 “은자의 황혼”의 초역 몇 구절을 소개한 것이다. 페스탈로치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은자의 황혼”에서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실존과 연관하여 물었고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교육의 근원이 되는 터전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시설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성의 조기확립을 위해 어린이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정에서 나오게 하여 시설에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페스탈로치는 이와 정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가 교육의 초점을 가정에 마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의 연계성이다. 오늘날 우리는 “시설병” (Hospitalism)이 아동의 성장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유아교육과 어머니의 사랑을 페스탈로치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는데 어린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사

랑의 바탕위에 승화된 차원에서 설정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믿음, 사랑, 순종 등의 덕목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어머니의 팔에 안길때 그 싹이 트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충분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페스탈로치는 우리를 길러던 어머니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주었다. 페스탈로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머니의 사랑과 연관하여 소개하였는데 바로 어머니는 페스탈로치의 말대로 “하늘이 내리신 교사” 이기 때문이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과제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1) “하나님이 각자에 부여한 능력의 개발”
- 2) “여러 능력의 조화적 계발에 의한 인격도야”
- 3) “각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몫을 하면서 개성을 실현하는 일”
- 4) “각자가 그 삶으로 사회의 바람직한 일꾼이 되는 일”
- 5) “궁극적으로 인류의 완성을 기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 김정환 역, 1993, 167쪽 - 제32신)

그는 지적 편향주의적 교육이 아닌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페스탈로치는 전인교육으로 머리, 마음, 손의 교육 즉 지적, 정적, 활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교육은 주로 머리 교육을 중요시하고 다른 심성이나 활동적인 노작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는 크고 가슴과 손은 작은 가분수형의 인간을 사회는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직업을 삶의 척추라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척추가 없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교육청 장학관이 학교를 감사하기 위하여 시골길을 가는데 그의 자동차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멈추게 되었다. 장학관은 자동차의 정비에 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10살짜리 어린이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 아동은 자동차 본넷트를 열고 카브레타를 청소하여 고장을 고쳤다. 장학관은 그 어린아이의 솜씨에 놀래서 칭찬하고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오늘 장학관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미련한 학생은 집에 돌려보내어 학교에 빠지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이야기는 케어센 슈타인어와 연관된 직업교육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페스탈로치와 더불어 게오르 케어센 슈타인어 (Georg Kerschensteiner, 1854-1932)를 직업교육의 선구자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전 국민의 일인일기와 관련하여 직업에 대한 기쁨, 근면성, 책임감, 활동적인 삶에의 헌신을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Klassiker der Paedagogik, S. 108).

학교에서는 삶을 위해 필요되는 실제적인 실천적 능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케어센 슈타인어에 의하면 노동학교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의의가 큰데, 훌륭한 노동자가 훌륭한 시민이라고 그는 노동을 시민교육의 핵심덕목으로 보았다.

실러는 활동영역의 특수화는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단지 분담하여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itt S. 45)

귀테는 그의 저서 “교육론”에서 하나를 제대로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100개를 반만 아는것 보다 낫다고 하였다. (Litt S. 48)

귀테는 직업교육과 종교적 정서도야를 교육의 핵심 과제로 보았는데 직업교육은 두뇌만의 교육을 배제하고 머리와 손이 상호 보완하여 사색과 행동이 결합되게 한다. 또 종교적 정서 도야는 신과 사람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심어 준다고 하였다 (김정환역 75쪽).

체험교육은 교육학의 역사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행청소년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알프스 여행, 범선여행, 승마 등을 들 수 있다. 지난번 한국 사회복지학회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자아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성천/노혜련/최인숙 1998, pp. 202-214) 미국에서도 체험교육을 비행청소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체험교육활동이 대안학교 모델로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체험교육과 연관된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체험교육은 그의 뿌리를 빌헬름 딜타이 (1833-1911) 에 두고 있는데 그는 정신과학 심리학의 창시자이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의 체험과 이와 연관된 외적인 객관 정신의 이해를 현실접근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체험은 주관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의 내재화와 연관지을 수 있다. 경험은 체험의 합산인데 경험은 자기 스스로의 체험과 자기의 직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은 성장하여 인식을 낳는다. 체험, 경험, 인식은 체험교육과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체험교육이 치료교육적인 개념으로, 치료적인 질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Ziegenspeck, 김덕환 역, 1996, p. 299)

WTO체제에 의한 세계 경제질서는 국가간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상호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교육경로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정책구상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에게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설정과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학생 개인과 국가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교육문제가 현재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서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심도있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교육개혁과 연관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안다. 그중의 하나가 미래형 인재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게 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고 많은 소외자가 생기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학교 교육 또한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교육되고 지원되기 보다 획일적인 교육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 또한 핵가족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많은 가정이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역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비행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전제하므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비행의 원인론과 비행청소년의 임상심리적 특수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문제를 발달 및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책을 전망 제시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II. 청소년과 공격성

왜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독일의 "슈피겔"지 (Der Spiegel)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독일의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보고하면서 그 원인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청소년의 공격성¹⁾이다. 공격성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빈부의 격차이고 다른 하나는 TV, 비디오등 폭력적인 내용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독

1) 요즈음 tv, 비디오 등의 영향으로 공격성을 학습한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로렌즈 등은 인간의 공격성이 본능으로서 잠재한다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죽음의 본능 또는 파괴적인 본능을 원초적인 본능인 리비도 아래에 놓아 두었지만 후기 프로이트는 죽음의 본능이 원본능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한데 공격성이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 등 체험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일사회에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TV 등에 나타는 광고이다. 많은 광고가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현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불만과 스트레스에 싸이게 된다고 한다. 슈피겔의 이러한 주장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갈등이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서구사회의 문화적인 목표인 황금과 이를 얻으려는 제도적인 수단간의 갈등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슈피겔의 또 하나의 다른 주장은 TV, 비디오 등에 폭력 물²⁾이 방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슈피겔은 상호작용이론을 들어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였는데 1단계는 관찰자의 태도이다. 이때 관찰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공격적인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공격성과의 사전접촉 여부인데 여기서 중립적인 것을 공격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가 흔히 자신의 기대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반응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방 역시 사전에 공격적인 것에 대한 접촉여부에 따라 중립적인 것도 공격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공격성의 정도인데 상대방의 공격성의 도가 지나치면 여기에 반하여 역공격을 하던지 아니면 대화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가지 방법은 공격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이것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네번째의 단계에서는 다른 공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세 번째 단계에서 잠재되었던 공격성이 가중되어 함께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습관성 대리욕구충족제인 영상을 통한 2차적인 체험은 활동중심의 1차적인 체험교육으로 보완되어 져야 할 것 같다.

2) 예를 들어 "할머니의 품에 앉아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과 비디오를 통해서 이러한 살인 장면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디오는 oneway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내용을 여과없이 제공하며 청소년들은 흔히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는 중기 및 장기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I. 사회변동과 청소년

1. 산업사회, 도시화, 세계화

아노미(Anomie)= 비규범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간의 갈등 ("경쟁과 성공" 강조)

유해환경

여가공간

[참조: 생태학적인 이론 Chicago Area Theory]

2. 가정의 기능 축소 (핵가족)

사회의 기능 확대 (사회제도가 보충해주어야 할 필요성 제기)

친우집단: 청소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친우집단의 영향력 커짐

[참조: 비행하류문화론]

TV, 인터넷, 비디오, 만화

입시위주의 교육 -----> 진로지도, 직업 및 기술교육의 필요

정서교육의 결여-----> 체험교육, 사회봉사 필요

3. 사회와 범죄와의 관계

사회가 올바르게 범죄가 줄어 들것이다.

부모의 역할

이성보다 감정으로 처리하려 한다.

청소년문제

성인시각에서 논의

4. 기술 -----> 인간화 (Weizecker)

산업사회 (신속화, 자동화, 규격화, 상품화) ----->인간소외

정보화 사회 (익명화) ----->인간소외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는 삶"

IV. 자아의 개념³⁾과 청소년의 자아성장지원

레들 (Redl)은 비행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자아결함을 21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중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욕구좌절의 내성이 낮다 2) 불안정감, 불안감, 공포감의 억제불능, 즉 정서의 균형을 잃고 극단적이면서 격한 행동이 나타난다. 3) 유혹에 대하여 저항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다. 4) 흥분이나 집단심리로의 도취성이 강하다. 즉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기 쉽다. 5) 소유물을 보살피지 못한다. 즉 책임있는 보살핌이나 소중하게 하는 일이 없다. 6)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즉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7) 승화하지 못한다. 즉 본능적 충동이 강하다. 8) 죄악감의 처리불능, 즉 죄악감에 대한 반성이나 자책이 부족하다..... (Redl, F./Weinmann 1979, pp. 77-143; 이상현 1992, pp. 64-65 참조)

자아란 체험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연결되는데 스스로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다.⁴⁾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미처리시(Mitscherisch)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청소년 자아형성의 지원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제약으로 본능적인 이드(id)의 충족에 혼선을 갖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자아적인 도덕성 및 사회정의 결여로 자아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초자아적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권위는 추락하고 대신에 황금, 즉 물질만능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 급히 변하는 사회현실에 휘말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그는 통합과 비판의 능력을 성숙한 자아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들었으

3) 아동은 tabula rasa (하얀 백지)가 아니다!

4)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영역이나 적성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탐색을 가져보지 못한채, 곧바로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생활하는 과정에서 졸업후의 진로문제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원호 외 1994, 147쪽)

며 본능적인 이드(id)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자아의 적응방식을 미처리시 (Mitscherisch)는 두 가지로 보았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적응"이고 다른 하나는 "피동적인 적응"이다. 피동적인 적응은 복종을 강요케 하며 복종은 자아성장을 저해한다.

에릭 프롬 (Erich Fromm)은 초자아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권위적인 초자아"와 다른 하나는 "휴머니즘적인 초자아"이다. 권위적인 초자아는 죄책감을 주고 휴머니즘적인 초자아는 생산적이고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드(id)적인 본능과 휴머니즘적인 초자아의 지원을 통한 자아 지원이 요청된다.

프로이트 (Freud) 는 자아의 역할을 단지 본능과 초자아의 소개자로서 경미하게 보았는데 예를들면 "서커스의 광대"와 같이 커다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안나 프로이트 (Anna Freud)는 자아의 방어기제⁵⁾를 인정했으며 하르트만 (Hartmann)은 자아를 나르치즘(자기 도착증)과 구별하고 자아가 성격구조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에릭슨 (Erikson)은 분리과 독립의 개념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부모의 품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하려하나 부모는 청소년을 단지 "대상"으로 보며 그를 그의 삶의 주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모는 아동이 독립하려는 것을 저해하고 붙잡혀 두려하기 때문에 정체감의 혼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모험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질풍노도기", 호기심, 무한정한 체험 등 학습욕구를 이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은 청소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기존질서에 저항하는 등 반항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쉽게 좌절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용래, 교육심리 1980, p. 45).

5)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불안은 본능과 초자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세계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의식의 세계로 표출하려는 것을 자아의 방어기제로서 막고 있다. 불안과 공포의 차이는 불안은 대상이 없는데 반해 공포는 특정한 대상이 있다 (예를 들면 시험공포).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면 신경증이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인처럼 사회소속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또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고 싶어하는 이른바 성인도 아니며 어린이도 아닌 표류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에릭슨(Erikson)은 이 시기를 "정체감의 정립과 혼미"의 단계로 보았는데 이때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찾게 되며 동시에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은 정체감의 정립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전인적인 지원이 요청되는데 오늘날 청소년과 학교교육을 보면 전인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 페스탈로치는 전인교육으로 머리 마음 손의 교육 즉 지적, 정적, 활동적 교육(노동 및 노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육은 주로 머리 교육을 중요시하고 다른 심성이나 활동적인 노작교육은 등한시 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는 크고 가슴과 손은 작은 가분수형의 인간을 사회는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행청소년 교육은 일반적으로 언어 중심의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험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아동복지 전문지인 "Child Welfare"를 살펴보면 청소년지도 개입기법에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알 수 있다:

긍정적인 가족지원 개입기법의 예를 들면 가족성원이 스스로를 자신의 프로그램의 주역으로 인식하며 사회사업가 및 시스템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족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찾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은 가족과 주위 시스템의 중심이 되며 이들이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적성 및 장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Laney Batavick: Community-Based Family Support and Youth Development in: CHILD WELFARE September/October 1997 639-660 쪽)

비행청소년의 지원기법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을 "희생자", "악당" 대신 "자원(resource)"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냐는 물음과도 연관된다.

"희생자"로 보는 시각은 클라이언트의 피동성을, "악당"으로 보는 시각은 처벌을 강조하게 된다. (Gordon Bazemore & W. Clinton Terry, Developing Delinquent Youth: A Reintegrative Model for Rehabilitation and a New Role fo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CHILD WELFARE September/October 1997 665-676쪽)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자아성장을 위한 지원이라고 사료되는데 진로지도와 체험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주제 발표문 2

주제발표 2.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

2005. 12. 3

이 재 천

(전북교육연대집행위원, 전 전주시의회 의원)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애지길 바라는가

이 재 천

(전북교육연대집행위원, 전 전주시의원)

먼저, 저는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여러 위험한 문제 행동들에 대한 심리적인, 사회 ■ 환경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내고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해내는 심리학자나 교사, 교육학자가 아닙니다. 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년 폭력의 문제에 대해 공부를 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전문가나 현장 교사의 학식과 경험을 뛰어 넘는, 그리고 그 모든 연구와 정책과 노력들을 무색케 하는 청소년 폭력의 현실에 함께 처해 있는 이 사회의 기성세대로서의 관심과 책임감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 폭력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피해를 주는 사춘기의 장애적인 품행을 넘어서서,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범죄로 확대된 이 현실에서 제가 가진 책임감이나 관심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하게 어렵기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처지도 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폭력의 개념과 유형과 특징입니까? 또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론적, 통계적인 분석입니까? 폭력 가해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정서적 ■ 성격적 특성들, 지성의 결여나, 가정의 구조적 ■ 물리적인 환경, 혹은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불합리한 양육태도, 그리고 아이를 거부하고 학교 환경,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환경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법관이, 혹은 전문가가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 기막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

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그런 처방이 분명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 폭력 문제에 당면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인 장치로서 제도화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진정 관련자들의 말대로 학교 폭력의 증가와 감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교사들 가운데 오히려 해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분석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로 인해 야기된 이 무서운 사회 문제를 어떻게든 풀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안녕을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폭력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은, 청소년들은 피교육자이고 어린 사람들, 약자이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문제가 변형될 것이라는 막연한 도식을 상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소년관련 법과 기구들의 존재는 청소년 폭력의 실재를 드러내는 장치일 뿐,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 청소년 폭력의 현실이 변화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도 청소년 폭력의 현실적인 사례나 그 현황과 원인, 대책에 대한 지식적인 사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서, 혹은 학원 등에서 교사나 동료 학생, 모르는 청소년으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해본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경우,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정신적 물리적 해결이나 보상도 없을뿐더러, 제도권 교육 당국이건 상담교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무하다는 것만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폭력을 당한 학생과 부모들은 그 이후 모든 과정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되고 오히려 치료의 문제에서는 자식을 앞세워 돈이나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부모로 탈바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불행을 자초한 비교육적이고 무능한 부모라는 시선이 뒤따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현실에 얽혀 있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싶을 따름이고, 만약 제대로 본질에 접근하게 된다면 어쩌면 저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방은 부재하며, 이 청소년 폭력의 문제도 하나의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라고 바라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학부모이고 교육자이고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가들입니다. 제가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른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함께 공존하며 화합하고 살만한 환경입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것이어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완벽하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면서 왜 아이들이 완벽하게 성장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참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평등 교육과 자유의 의식을 배우고 평화의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학교라는 현장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학교를 잘 나온 사람들이 과연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무슨 대단한 지식을 얻게 되거나 품성의 함양이나 인성을 개발하기를 기대해서가 결코 아니고, 그저 보통 교육으로 그 세대들의 평균적인 행동과 지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낸다라는 인식이라도 갖추지 않고서는 학생과 부모는 여지없는 불모의 처지에서 학교의 행포와 권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평균적인 또래 수준만 돼라' 하는 것이 가장 소박한 부모들의 바람이지만, 학교는 일반적으로 평균과 거리가 먼 아이들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교사는 조금만 뒤떨어진 학생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체벌하고, 학교는 그것을 방임하고 방조하는데 바로 그것이 학생들을 비인간화하고 비

정상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에는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 절반이나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한편, '평균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 학교나 학생들이 잠잠하니까 저 혼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외면하고자 할 따름이지만 자유와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자유에 무지하고 인간에 무정한 학교의 냉혹한 인간성에 몸서리가 쳐질 때가 많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5센티 6센티로 재단해야 하는지, 왜 외투나 신발은 검정색이어야 하고, 왜 발목 양말은 안 되는지, 왜 지각하면 맞아야 하는지, 왜 조금만 선 밖으로 나오면 벌을 서야 하는지, 학교라는 곳은 인간들을 모아놓고 인간성에 대한 이해도 숙고도 없이,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차별하고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버릇없고 참을성 없고 불량스럽고 막돼먹었다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혼내고 때리는데 저는 바로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학교가 다들 멀쩡하다는 것이 더욱 놀랍고 아슬아슬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사들이 걱정하고 비난해마지 않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도 학교에 불 썩이지 않는 것을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본능적이고 한 치 앞을 재지 못하는 철부지들이 자기들에게 그토록 함부로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교사와 그들을 비호하는 학교에 대해 저항하며 달라들지 않고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고 참는 것이 기적 같지 않은가요?

그러나 세상에 기적은 없습니다. 아이들 역시 무서운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합니다. 어른들이 참을성이 없듯 아이들 역시 참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권력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교사들이 어리고 약한 존재들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감정과 욕구를 분출하듯 아이들 역시 더 약한 동료 학생, 동네 아이들을 향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며 감정과 욕구를 보상받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들에게서 인간의 본능과 지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아프면 몸부림치고 배가 고프면 필사적으로 우는 것 이것이 본능이고 지혜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어른과 청소년 사이에도 인간성의 차이가 과연 있는지 회의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인지적 상태나 가정적,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연구

에는 골몰하면서 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의 정서적 지적 상태와 환경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폭력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권력 집단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물리적 경제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권력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그 어른 가운데에서는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약자는 여성과 아이들이고 그 중에 아이들은 가족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최악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제멋대로이고 폭군 같은 것이 아이들이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왕자 공주처럼 섬기고 뜻 받들어 주며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기만 할 뿐, 정작 아이들의 무력감과 공포심에 대해 이해하고 위로하는 부모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착하고 온순하고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 잘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가 '평균 이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가치의 혼동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모들의 무지와 이기심과 성급함과 변덕스러움의 희생물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장기를 조금만 냉정하게 되돌아보아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보통 부모들이 하는 짓에 대해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은 억지를 쓰고 반항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챙겨준 초라한 준비물을 학교 오는 길에 버리는 것은 되바라지고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아이들은 정든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부모로 인해 전학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출을 하고 제 고향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진짜 인간 같기도 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는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다른 아이들을 왕따 시키려고 하는 것은 패배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도를 벗어난 학교생활에서 무방비로 겪어야 하는 평가와 비난과 조롱, 마음에 안 드는 또래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불편과

부적응, 책임감 없고 완고하고 변덕스러운 부모들의 시선, 그것들을 아이들은 수용하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동질적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다르지 않고 함께 묻혀 사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성인이나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욕구와 의식은 역으로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억압과 차별과 똑같은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재생되는데 부모가 이혼한 아이, 부모가 안 계신 아이, 특별히 가난한 아이, 특별히 공부 못하는 아이, 특별히 활동적인 아이, 특별히 못생긴 아이, 특정 종교나 소수 종교를 믿는 아이 등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가해지는 모든 가해적인 상황들이 겉으로 아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안으로도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하루 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감정과 안전한 세상에 대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감정과 이상적인 욕구들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정신적인 추구하고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 모습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엄마들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이 너무도 자주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냉혹하고 잔인한 흐름 속에 나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겨우 4, 50년을 살고 있는 제 인생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수만 년, 수천 년이 된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와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의 규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교사의 권위와 영향을 수용하기

만 하는 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과 폭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의 살벌한 경쟁 체제를 받아들이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녀로 만드는 것을 사랑이나 책임과 동일시하는 부모로 남는 한, 아이들은 끝없이 불안하며 경계하고 그 내면의 긴장과 불안이 아이들을 이기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에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평등과 가난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한 청소년들이 폭력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토론편 1

토론편 1.

인격 형성기의 청소년 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2005. 12. 3

김 종 영

(전북생활체조연합회 회장)

인격 형성기의 청소년 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김 종 영

(전북생활체조연합회 회장)

청소년 심신 수련과 전인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도민 생활체조운동과 도민 자
전거타기운동을 주관해온 단체장으로 한국 도서지도사 협회 최 기호 도지부장님
이 주최하는 학교폭력 대처방안과 학생 인권 문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함을
감사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

발제를 해주신 김 덕환 교수님 과 이 재천 위원님의 관련 “시스템 개혁과 체험
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과 참스승, 참 부모사랑이 청소년 인격형성의 대안”
이라는 내용에 동감하면서 토론 자료를 올린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선의 발
달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황금만능주의와 퇴폐 향락에 물든 사회
와 입시위주의 과잉경쟁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교육 풍토는 우리 청소년들을 가
치관의 혼미와 갈등 속에 방황하게 하고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청소년 폭력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위해 속에 청소년들에
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 경찰, 교육청 등 범국가적으로 청소년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적인 문화, 입시위주의 굴
절된 교육 문화,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가정문화 등 사회의 구조
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폭력
의 원인과 책임을 청소년의 생활 장면인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에 있다는 논리
는 청소년폭력의 다면성을 지적하는 데는 적절하나 문제해결의 측면에서는 오히
려 무책임하거나 모호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

면 안 될 시점에 왔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0.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

- 협의적 폭력 :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행위
- 광의적 폭력 : 개인의 이익을 파괴 혹은 훼손시키는 일체의 모든 행위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혹은 집단따돌림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폭력의 유형 : 도구적 폭력, 표현적 폭력, 공격적 폭력, 방어적 폭력
- 폭력의 심각성 : 청소년기가 정서적 불안정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라는 인간발달 과정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폭력 경험은 성인과 비교해 그 결과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있어서]

- ① 정상생활의 영위를 불가능
- ② 주요 생활 장면인 학교장면으로부터의 이탈
- ③ 자살

[가해자에게 있어서]

- ①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폭력의 희열감, 과시욕, 집단적 동질감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폭력의 확대재생산의 위험

물질·기계 문명의 가속적인 발달로 인간의 정신생활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심한 심리적인 갈등과 정서의 불안정을 가져와 그들을 바르지 못한 길로 향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다. 청소년 비행과 폭력은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동기는 생활비, 유희비 마련 등 이욕이 15.6%, 우발적 동기가 27.5%, 부주의가 16.1%, 호기심이 6.2%, 기타 유혹 1.1%, 보복 1.1%, 현실불만 0.7%, 사행심 0.6%, 가정불화 0.1%, 기타 29.0%, 미상 2.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자료로서 왜 청소년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잘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보통 범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유전적 소질,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 등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입장이 있고,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의 문화 등 환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는 입장도 있다. 우리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환경적 특성이 있는데 사람은 자유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예전과 달리 오늘날 현실은 날로 심각해지고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저연령화, 흉악하고 포악화 되며, 집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연수원이 2004년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만20세 미만의 소년 범죄는 모두 14만 6천 9백 86건으로, 98년에 9만 9천 3백 1건의 비해 48%나 늘어났다. 양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가 점점 흉악하고 포악 해져간다는 사실이다

[사례1]

전북자치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는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하여 청소년에게 흥익인간의 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고 있다. 오는 12.4 제365회 자전거 타는 날이 금산사 가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은 9년 전과

달리 당초 수백명에서 지금은 수십 명 참여에 불과하다. 물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패턴의 영향과 사고 나면 책임 안 지려는 학교, 위험한 도로 사정, 학부모의 강력한 만류 등이 썩씩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에게 심신수련과 화랑도 정신의 젊음을 바르게 발산하는 자전거타기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

[사례2]

모 중학교에 생활체조 지도를 할 기회가 있었다. 체육시간에 모여서 정열 하는데 30분이 사용 되었다. 모이는 동작이 패기가 없고 한마디로 통제가 잘 안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었다. 강하게 벌을 주면 폭력이라고 말이 많으니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교실수업은 절반이 수면을 해도 깨울 생각을 못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물론 체조의 기본인 청소년 체조도 못하는 학생이 거의 전부다. 학부모와 선생님, 국가 차원에서 학생과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만학생증가, 체형은 좋는데 체력은 형편없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서 교원평가제 의 방향과 실천의 중요성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례 3]

현재 청소년들에게 "일진"이란 단어는 "얼짱"이라는 단어의 유행과 동시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얼짱"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얼굴이 예쁜 아이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일진"을 조직하여 마치 특별조직인 것처럼 엘리트층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아가 학교폭력의 선두에 서서 개인을 왕따 시키고 집단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청소년 단체는 각 학교마다 각 학년마다 마치 하나의 동아리처럼 존재한다. 위험천만 "기절놀이"가 최근 주춤하던 학교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이 약하거나 따돌림을 받는 학교 친구의 목을 조르는 놀이인데, 뇌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실신하기 직전 일종의 환각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지만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위험천만하다. 부탄가스 또는 본드를 흡입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후유증이 생기기 십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뇌의 산소 공급 중단이 반복되면 운동·언어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심하면 죽

음에 이를 수도 있는 놀이다.

[사례4]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 대화단절도 심각하다.

설문조사 학생 중 47.7%가 아버지와 식사 중 어쩌다 대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

인천지역 중·고교생 부모의 맞벌이 비율이 58.4%에 이르고 직업 없는 아버지 증가하는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직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공유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가족갈등의 주체인 부부간은 물론, 자녀와 대화가 부족한 아버지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인천홍사단(회장 한정구)은 인천지역 중·고생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일부터 6일간 '가족관계와 가족 구성원간 의사소통'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 이 결과 맞벌이 부모는 58.4%, '아버지만'은 34.4%, '어머니만'도 6%에 이르렀으며 모두 없는 경우는 1.2%로 나타났다.

• '가족 중 대화상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 50.3%, 형제자매 26.0%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18.2%에 불과해 아버지와 자녀간 대화가 여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과 식사할 때 대화를 하는가'란 질문에는 47.7%가 '어쩌다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어 갈등원인이 커지고 갈등해소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으로, 가족간 대화문화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자신에게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에 대한 문항에는 진로문제(42.7%)나 성적문제(20.2%)를 답해 부모의 관심이 대학입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실질적인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인관계(4.2%)에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2, 3년 동안 아버지에게 언어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24.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문계 남자고교 학생들의 경우 27%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계 남자고는 15.2%였다. 입시 및 진로문제와 관련해 부모와 갈등 과정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 또 최근 2, 3년간 가족간 갈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47.4%가 '있다'고 답해 가족간 갈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중 누구와의 갈등이냐는 질문에는 부모 간(46.8%), 아버지와 자녀(17.5%), 어머니와 자녀(13.4%), 형제자매간(13.1%)순으로 답했다.

• 부모 간 갈등원인으로는 경제문제(32.2%), 성격차(25.7%), 자녀교육문제(13.1%), 친척관계(8.1%), 시부모 모시기(6.1%), 부모님의 이성관계(5.8%) 순으로 답했다. 부모의 갈등정도로는 별거·이혼상태 19.5%, '가정이 깨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9.5%, '갈등해소를 위해 서로 노력'이 37.2%, '서로 무관심하게 생활'이 11%, '자녀들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이 13.4%로 나왔다.

• 설문조사 책임자(서현석씨47·교사)는 "최근 가정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절실하다"며 "특히 학생들의 사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 폭력과 학생 인권문제는 그 하나로도 적극적인 해결에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적극적인 인성교육과 폭력 없는 제도적 시스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스승과 제자, 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체험교육, 체험 학습 등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서로 책임을 통감하고 미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게 서로 역할을 찾아서 서로 챙겨주고 앞장서 해결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 가정과 학교, 사회와 나라, 인류가 지향하는 보람찬 청소년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토론문 2

토론 2.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05. 12. 3

백 속 현

(전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사무처장)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백 숙 현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사무처장)

학교폭력 실태

우리 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원인 진단, 그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하여 여러 기관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토대로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되며 갈수록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을 양산하는데 절대적인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으며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현황

☞ 학교에서 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 10,182('99)?11,562('00)?11,310('01)?7,318('02)?7,769('03)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10,580개교 중 10,580개교)

· 반기별 1회 실시 : 4,952개교(전체 학교의 46.81%)

· 반기별 2회 이상 실시 : 5,628개교(전체 학교의 53.19%)

· 1회당 1시간 실시 : 9,468개교

· 1회당 2시간 실시 : 1,219개교

· 1회당 3시간 실시 : 89개교

문 제 점

- ㉠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립으로 인해 학교기능이 변질되고 있다.
 -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전인적 인간 육성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 교원 사기 저하 일부 교사들의 소극적인 생활지도
 - 학력위주의 사회 수단이 되고 있다
- ㉡ 사회적으로 출세지상주의와 학력중심의 간판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 ㉢ 학교 교육이 우등생은 칭찬하고 앞세우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학습에서 부진한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 교사들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학교규율이 학교로부터 쉽게 이탈하려는 행동을 가져오게 한다.
- ㉣ 사이버 유해 환경 및 음란, 폭력성 매체물의 범람
- ㉤ 상급관청으로부터 질책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학교의 명예 실추로 쉬쉬하고 학교자체에서 조용히 처리하려는 문제 요인이다.
- ㉥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약화
 -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주의가 학생으로 하여금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하는 문제 요인들이다.
 - 학생들의 인권존중 의식 부족

학교 폭력 근본 대책이 필요 하다.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등한 범주에서 봐야 한다.

학교별로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도와줘야 한다.

가해자는 그 부모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책

임교사의 권한을 확대 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의 강화, 교사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능력을 향상 시켜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실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반면 가해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인식 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도 언젠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내 자녀만 안심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다른 학생의 폭력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 인권만큼 남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학내 인권교육을 도입하고, 학생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학생과 교사들의 시각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학생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훈육하는 지역사회,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임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토론문 3

토론 3.

학생들이 믿고 본받을 만한 학교가 되어야

2005. 12. 3

유 윤 중

(전주상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생들이 믿고 본받을 만한 학교가 되어야

유 윤 중

(전주상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올 상반기 <학교폭력상담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총 2천1백6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61%가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고, 가해자로는 동년배(62%)와 선배(11%)가 73%에 달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인 이상, 우리는 가해자 개인의 도덕성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과 대처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그 '상부'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부도덕하기 이전에 학교는 부도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가 부도덕하고, 교육 체제가 부도덕하고, 사회 전체가 부도덕합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이명선 청소년생활문화 위원장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 입장에 서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폭력은 그리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폭력이 의사소통의 일상적인 수단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이런 도덕적 무감각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사회에, 그리고 교육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학교에 다니실 때, 맹장 수술 하고 이틀밖에 안 지나서 소위 '주먹 좀 쓰는' 한 동급생의 주먹에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약 3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때린 그 아이는 간단하게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이가 다른 학교 애한테서 천 원을 빼앗고

돈을 빼앗긴 애가 학교에 신고하자, 그 중학교는 문제가 커지는 걸 두려워하여 그 아이를 전학시켰습니다. 수술한 지 이틀 된 사람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학교 내부 문제라서 조용히 덮고 넘어갔고, 돈 천 원을 빼앗은 건 다른 학교와 관련되어 있어 학교 명예가 걸린 문제라 서둘러 전학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소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 피해자 학생이 학교가 자신을 외면하고 정신이상자로 매도하자 실망하여 자살을 기도한 사건은 비단 그 한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라도 하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일보다 학교 내부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서 평판을 안 좋게 만든 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의 태도를 보고 학생들이 어떤 도덕을 배우길 바라십니까. 때릴 때는 증거 안 남게 때리고, 큰 문제만 안 생기는 선에서 주먹 휘두르면 된다는 도덕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 중에는 시험만 끝나면 학생들을 불러내서 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시험이 끝났으니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때린 거랍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의를 제기하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립니다. 성적도 안 나오는 주제에 지각했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인격이 짓밟히는 곳에서, 힘 있는 학생들은 배웁니다. 폭력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때려서 말을 듣게 하면 된다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별로 참을 것도 없이 주먹을 휘둘러도 된다고, 그래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학생들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부모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신고 후 신고학생의 신변보호라는 점도 상기해야 합니다. 많은 무심한 선생님들이 피해 학생들의 신변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을 간단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를 마

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계속 보복을 당하더라도 그때마다 계속 신고하기만 하면 학교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부나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가 가장 많은 욕설이 탑재된 최고의 청소년유해사이트고, 학교가 가장 많은 폭력물과 폭력적 언사가 오고가는 청소년 유해지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촘스키의 말처럼, 학교가 진실로 민주적이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념, 정의를 실천하고 체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 구태여 민주주의나 도덕에 대한 상투적 구호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회는 물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대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실추의 문제점은 단순히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믿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CCTV보다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일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폭력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와 교사의 태도 및 여건, 그리고 교육 체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며, 당장은 전문적인 상담 교사를 엄선하여 각 학교에 배치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체험적이고 전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라온 뿌리 깊은 불신이 일시에 일소되지는 않을 테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시위주 교육 자체의 변화, 교사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등과 함께, 상담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정부와 학교들은 전시 행정이나

성과주의 행정을 떠나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추상적 이야기나 과장된 사안이 아니라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현안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회는 많은 학생들을 자살이라는 형태로 또는 타살이라는 형태로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방치해두었습니다. 어떤 교사가 TV에서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이 없다. 어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당국자나 학부모는 어째서 교사에게 그런 의무까지 지우려 하는가? 교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줄 아는가? 모든 행정업무의 과중은 기본이고, 정시에 퇴근하는 건 이미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당신들은 교사들을 어디까지 내몰 작정인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으로서의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 부재와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왜곡된 사회 모습의 한 단면이라는 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은 사회가 져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깨달은 이상 우리는 저런 식으로 의무나 책임을 따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문 4

토론 4.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

2005. 12. 3

송 윤 용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 토론 주제 및 발제자: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

이재천 (前 전주시의회 의원, 교육연대 집행위원)

■ 토론자

송운용 (햇살가득한 아동센터 대표,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I.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를 가슴 아프게 한 사회현상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의 실태였고, 그 가운데 일명“일진회”라는 학원 내 청소년폭력 동아리로 밝혀지면서 기성사회의 책임있는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폭력이 흡사 성인들의 조직화와 잔혹성을 옮겨온 그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그들 청소년 자신들의 개별적 성격 장애나 일부 기능적 결손가정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아이들의 일탈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꾸준히 청소년들의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학원의 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그 계획과 실천에 있어 학습 주체들은 물론 일반사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동시에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독서지도사협회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특히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개선하려는 논의적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그들 청소년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체적 시스템속에서 이해되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토론자는 앞서 제시한 발제자(이재천 前 전주시의회 의원, 교육연대 집행위원)의 주제“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에 근거하여 크게 두가지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토론자로서의 주어진 역할¹⁾을 충실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굳이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생산적인 세미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주제 발표와 세미나 등에서 다뤄지는 학문적·임상적 접근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각각의 역할에 대한 논의적 충실성을 제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내용적 접근 방식으로 발제자의 논고를 중심으로 내용과 주장들에 대한 중요 시사점에 대한 공감적 의견과 異見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위주로 토론코자 하며,

둘째, 총괄적 접근 방식으로 발제자께서 제시한 논고에 근거하여 토론자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대안(선행 연구의 검토 및 토론자의 경험적 근거)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토론의 주요 내용

먼저 발제자께서는 전주시정에 대한 소명과 소신이 남달라서 열정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교육민주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지지하는 어른들이라는 점에서 토론자와 의식을 같이하는 동역자로서 공감을 갖게 한다.

발제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장 또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염려하고 권익을 찾아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묻어나 있는 점 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반면, 기존의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관리)체계²⁾에 대한 불성실함과 허구성에 대해 적지 않은 불신 때문인지, 토론자와 부분적으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제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첫째, 발제자의 고심을 표현한 글 중에서 오늘의 논의가 오늘 우리사회에서 보여 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 특히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사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가 가진 책임감이나 관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전제한 뒤 기존의 청소년 관련 관계자나 연구자, 연구 결과, 관련 법률, 제도, 가정 내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환경 및 사회환경, 학교폭

2) 발제문에서 언급된 주요 체계에는 학교당국(교사), 교육부당국, 청소년 관련법, 집행기구, 제도, 심지어는 물량주의에 젖어있는 왜곡된 부모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력 자치위원회, 학교 내 상담교사 등 많은 체계들의 활동과 내용들이 유의미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넘어 일부분은 오히려 해악적 요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즉, 우리가 학교 청소년의 폭력을 이해하고 줄여가기 위해서는 발제자가 부정적으로 언급한 여러 가지 관련 지식(정보, 통계)과 관련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리적인 장치, 제도, 시스템 등에 대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선행적 이해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내 인지하고 적용해야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 한다. 아니 기본적 태도라고 생각한다.

둘째, 학교라는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학교당국과 교사들에 대해 너무 과중한 짐을 지우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든다. 청소년기에 있어 학교는 그들의 발달 과업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지식의 연마와 또래 집단들간의 교류의 장 그리고 먼저된 인생의 선생들로부터 각자의 개성과 본을 모델화(자기화)해나가는 정도의 기능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전인격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수련의 장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학교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동에서 오는 결과나 책임이 학교와 선생들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조직내에서도 부적격 구성원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선생들의 학생지도 방식이나 교육 방침의 그것을 일반화하듯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제자의 글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이하 중략 ...교사들이 어리고 약한 존재들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감정과 욕구를 분출하듯 아이들 역시 더 약한 동료 학생, 동네 아이들을 향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며 감정과 욕구를 보상 받습니다.”까지 재 인용)

셋째, 발제자의 주제 “청소년 폭력, 무엇으로 없어지길 바라는가?” 라는 주장에 대해 본 토론자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물론 발제자도 직접적인 답을 얻고자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제에 대한 결론적 시사점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의 논고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동의 동인이 “학교당국의 규칙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 “우리사회의 살벌한 경쟁체제를 받아들이고 경쟁에서 살아 남게 하려는 부모가 있는 한”, “지구상의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불평등과 가난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한", 등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국가로 이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변화된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 한다.

다만, 이경우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생활 현장적 대안의 주장이라기보다 포괄적인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주제의 결론적 함의에 의문점을 더하게 했다고 본다.

2. 토론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적 연구와 경험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나 본 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토론자로서의 역할에 근거하여 이를 생략하고 몇몇 결론적 의견만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으로, 발제자가 지적한대로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관련체계는 학교 당국과 교사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내 인적구성으로는 학습 그 자체를 위한 인력이자 청소년의 인성과 특성을 고려한 관리 시스템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개별적 어려움은 물론 집단의 역동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청소년들의 일상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교사의 태도, 친구들과의 친밀도, 학교의 규칙이나 분위기, 학교환경등)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둘째,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의 폭력은 ?교사회복지사를 통해 1차적으로 예방적 노력을 경주할 수 있으나, 이미 손상된 신체적·정서적 자아는 전문 치료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혹은 외과의사의 협진이 필요하지만)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査定(assessment)되고 관련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해청소년(집단)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다.

이는 가해청소년도 학교폭력의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조명되어야한다는 관점으로,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이고 가족과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학교폭력 관계법에 의한 처벌이나 제재에 앞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보호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청소년 인권 옹호단체 전문가들의 청소년 지도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본다.

넷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근본적 접근방식이 위험요인의 단절과 해결 중심에서 보호요인의 예방과 지지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인식적 전환은 우선 학부모가 그리고 학교의 교사가, 교육당국이 먼저 인식해야하고 다음으로 우리사회가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지원과 육성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간이라고 볼 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시스템과 기능이 작동되도록 정책수립과 과감한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하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력이 정책에 반영 실행되도록 양적 질적 연구와 함께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나가며

우리는 1990년 전후 일본의 역사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바 있다. 일본의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이지매"를 기억한다.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여년간 학부모, 교육당국, 학교 및 교사,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어 학교폭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는 일부 학교의 성실한 학교나 선생님들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오늘과 같은 논의의 활성화와 책임있는 구성원의 자각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이러한 소망은 현실이 되어야 하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력과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1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한 학생문화 혁신방안

2005. 12. 3

안 승 문

(서울시 교육위원)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한 학생문화 혁신방안

안승문 / 서울시 교육위원

1.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중고생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해 갈수록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즉,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 여러분은, 지금은 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자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관습의 틀에 맞추어 생활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으로 성장해 갈수록 학교 안팎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자율과 자치가 인정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행동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청소년인 중고생 여러분들에게 자율과 자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풀어보는 경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해 낸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 청소년기에 학교 안팎에서 해 보는 다양한 자치활동 경험, 하고싶어 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계획과 방식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해내는 경험이야말로 여러분이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치활동은 여러분을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우리의 학교나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불평과 불만만을 말하며 바라보고만 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볼 수 있는지, 자신들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실 어른들을 설득하고 협력과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

이야말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멋지게 하는 방법은?

- 자율과 자치는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가까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이나 학교야말로 자치활동이 가장 필요한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급이나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풀어갈 수 있어야 하며, 꼭 하고싶어 하는 일이나 건의 사항들을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그러나 현실의 많은 학교들은 생활 속에서 폭넓은 자율과 자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학칙이나 교칙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요즘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학생들을 지도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선생님이 계시고 규제와 통제 위주의 낡은 학칙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치 능력이나 책임 의식을 충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 그 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쫓기듯이 생활해야 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자치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대학입시나 시험공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치활동은 매우 사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은 유명무실해지기 쉽습니다. 학급회의 시간을 자습이나 하면서 보내거나, 학생회가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율과 자유를 누리며 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이 학교에서의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학교를 입시학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율과 자치권을 누리면서 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1) 학교내 자치활동의 방향 설정부터 바르게 해야

-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 생활상의 문제 등을 자신들의 힘으로, 공동체적인 원리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실현시키고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학생회는 자신들의 문제나 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나 토론 등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치활동은 자기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뿐 아니라 학교를 더욱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갈 책임을 함께 지고 그를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 학생회는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 학생회는 다른 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시민 사회단체와의 교류, 다른 나라 학교 학생들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학생회장으로 세워야

- 학생 자치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장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학생회 활동이 실패하거나 흐지부지 하게 되는 많은 학교들은 올바른 선거를 통해 진정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장의 자질은 학생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공로상이나 가산 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학생회장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친구들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야 합니다. 회장에 출마할 사람들은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 선거 방식을 좀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바꾸자

1. 출마 및 운동 방식을 공동후보군(런닝메이트)제로...

- 학생회장 선거는 당연히 직선제로 하되,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정 부회장 입후보자(3~4명)들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여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후보군제는 선후배간의 만남과 교류를 긴밀하게 하고, 선거운동 하는 데 다소 미숙하고 부자연스러운 학생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선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런닝메이트는 입후보자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짝을 지을 수 있게 하되, 마음에 맞는 후보자들이 만나 서로의 장점들을 살려 공동후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